

# 옛 문헌 속 전북 역사 · 과거 만나다

# 무주군, 미술품 대여 전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

11월 23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서 '틈새 미술관 EP.2'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역사기록물 전시회' 10월 6일까지 하안양옥집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발을 기념해 옛 문헌 속에 담긴 전북의 역사와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옛 도지사 관사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주 한옥마을 내 하안양옥집(舊 도지사 관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사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립박물관 등 도내 기관이 보유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와 기록물이 전시,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전북의 역사를 이미지와 실물로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또한, 대한뉴스에 방영된 시대별 전북의 주요 사건들도 감상할 수 있어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전북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주요 전시물을 살펴보면 '호남도선생안(湖南道先生案)'은 현재의 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고려 공민왕 시기 인림사 권사복부터 조선시대 관찰사에 이르는 이취임 기록한 자료다. 이전에 있던 선생안을 1875년 올해년 재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도지사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기 기록에 의하면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1898년~1900년)를 지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사기록물 전시회 포스터

정읍시립박물관 소장 '임계기사(壬癸記事)'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건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정읍 태인 유생 안의와 손홍록의 당직

근무일지를 통해 전북의 역사적 순간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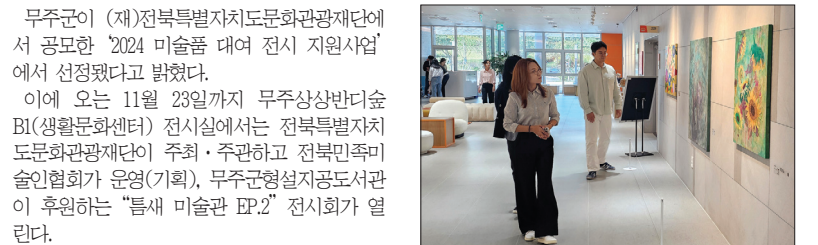
그 외에도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주자대전', '동의보감'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서 6점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과 전북의 주요 행정구역 변경과정을 담은 자료들도 전시되어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전북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동영상 상영 공간에서 1959년부터 1991년까지 방영된 대한뉴스 14점이 상영, 이를 통해 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공식(1961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1963년), 새민금 간척사업 기공식(1991년) 등도 접할 수 있다.

유호연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전북은 전주사고와 적상산사고가 있었던 기록문화의 중심지"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양옥집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67번지(전화 063-230-4231)에 위치하며,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이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한 '2024 미술품 대여 전시 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 23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BI(생활문화센터) 전시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민족미술협회가 운영(기획), 무주군형설지공도서관이 후원하는 "틈새 미술관 EP.2" 전시회가 열린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기홍(바람-붉은 대숲, 바람-대숲), 이민정(향기-향, 빛-물들다), 김윤숙(나만의 시간, 숨 쉬다 바람을 느끼다), 유중희(생조석간, 썸조석간2), 김두성(가자!, Wall-月), 송은경(들꽃처럼, 희망의 꽃이 피어날길..), 임동식(열린, 호박-꿈), 안상현(만월, 식량자주-우직하게), 임연기(한여름 1.2), 진창윤(주세죽, 골목) 작가의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박금규 과장은 "미술품 대여 전시 지원사업은 도내 미술시장에 활력을

을 불어넣고 모두가 누리며 관람하는 이동형 갤러리"라며 "공모 선정을 통해 귀한 기회를 얻은 만큼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무주상상반디숲을 만들기 위해 미술작품 전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시설(도서관&가족센터&생활문화센터)에 어울리는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농악, 세계의 신명이 되다'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제29회 필봉마을굿 축제 27~29일 필봉문화촌서 개최

임실필봉농악보존회(보존회장/인간문화재 양진성)가 주최/주관하는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제29회 필봉마을굿 축제가 '농 세계의 신명이 되다'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필봉농악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하는 필봉마을굿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자리에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민족의 흥과 열, 신명을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한 전주삼천포농악, 청주농악, 강릉농악과 고성농요, 호남우도부안농악, 구례잔수농악, 수영지신밧기 놀이, 김천금릉빛내농악, 평택농악, 익산삼기농요, 해외 소수민족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한 자리에서 펼쳐진다.

또한, 전북의 명인들과 함께하는 "가·무·악"과 농악과 디제이의 흥미로운 만남-DI그룹 '썸지방'과 함께하는 '필봉야류'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축제의 열기를 한껏 돋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갈고닦은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개인놀이 경연대회와 양순옹배 풍물굿 경연대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풍물야기 체험, 에어바운스, 전래놀이 마당, 피자 만들기 등 무형유산을 활용한 상시체험, 학술 세미나,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29회 필봉마을굿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성인 대상 서예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성인 대상 문화 강좌 <서예인문학 '시작(始作)을 운영,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인문학은 서예문화를 주제로 한 국립전주박물관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 서예문화를 발견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이다.

강좌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운영된다. 그동안에는 '서예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6월), '이야기'가 있는 글씨와 그림(박진우 서예작가, 8월)가 진행됐다.

이에 25일에는 '묵향의 변신,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여태명 원광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또 10월은 '브랜드를 키우는 글씨'의 힘(강병인 텃글씨작가), 11월은 '덕인, 붓을 만나다(곽종민 무형유산보존장) 등 서예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강한다.

한편, 9월 강좌는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의 체험강좌 신청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군산서 찾아가는 연합 사회공헌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4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합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친환경 문화예술교육 키트 체험, 밑반찬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을 진행했다.

재단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ESG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천연삼베와 스티커를 활용한 다용도 천 만들기와 천연수세미, 대나무 칫솔이 구성된 교육키트 체험 등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일자리 페스타' 전주대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5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허림미션홀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일자리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호텔, 리조트, 여행사, 행사기획사, MICE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기업 25개사와 7개 관광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현장 면접관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 최대 2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이내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업준비관에서는 일자리 상담과 취업 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벤트관에서는 퍼스널 컬러진단, 면접 메이크업, DISC 검사, 지원적성검사 등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날 All KHR 면접 컨설팅의 정은빈 강사가 '취업면접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아리움 어버이 하차제

###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4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출연 합창단



부안여성합창단



정읍 Ever green 합창단



전주교육지원청 합창단



크로시여합창단



전북 CBS레디미스 관사 합창단



전주시민합창단